참교추 게시판

『마이클 호튼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읽고』

정병윤 목사 | 영남교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미국의 개혁신학자 중의 한 명인 마이클 호튼이 지은 책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말은 사실 모순적인 말입니다. 기독교라는 말 속에 그리스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와 같다는 것입니다. 호튼은 특히 미국 기독교의 현실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진단합니다. 미국의 자유주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주의와 복음주의를 포함한 전반적인 미국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호튼은 이 책에서 몇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찰스 피니의 펠라기우스주의(2장), 조엘 오스틴의 형통복음(3장), 맥클라렌의 이머징 교회운동(4장), 영지주의 영성(5장) 등에 대해 다루면서,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2장에서 찰스 피니의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 다룹니다. 그는 2차 대각성 이후, 찰스 피니의 등장으로 인해 미국 교회가 펠라기우스주의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날 미국 기독교의 심각성은 찰스 피니의 이러한 펠라기우스주의적 경향이 미국 교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펠라기우스주의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조엘 오스틴의 형통복음에 대해 다룹니다. 요즘 수많은 자기 계발 서적들이 말의 힘을 강조하면서,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데 사용하라고 부추깁니다. 말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말이 중요하지만, 말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호튼은 이 책에서 미국의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설교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설교 강단에서 듣기 좋은 말들은 수없이 외치지만 정작 들려져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구원의 메시지는 들려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에 대해,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설교라고 지적합니다. 조엘 오스틴이 쓴 책 가운데, 『긍정의 힘』이나 『더 잘되는 나』라는 책 등은 미국과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호튼이 우려하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책들을 읽고, "좋아!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잘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신자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빼 버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점점 기독교의 진리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더 잘 살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알맹이가 사라진 껍데기 기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점을 주의하면서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자기 입맛에 맞는 달콤한 설교만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바른 복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호튼이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미국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으며,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도 이미 미국교회를 본받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로 전락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교회들마다 복음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또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강육남 목사 | 물댄동산교회

안녕하세요. 저는 물댄동산교회에서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강육남입니다. 만으로 개척 6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만큼 정신없고 바쁜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내가 가장 근접에서 알하는 직장 동료의 코로나 확진으로,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나, 아내에게 암이 보이는 것 같다는 병원 의사의 진단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개척 초기에 건강에 집중하느라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초조함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최종 유전자 표적검사 결과 '분명 암인 것 같은데, 일단 암이 아니네요'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매우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도 '간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고, 백혈구 수치도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한다'는 진단이 더해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눈도 자꾸 염증이 생겨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연말에는 건물 주인이 월세를 높이겠다고 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화곡동으로 예배당을 이전해야 했습니다. 예배당 구하기가 생각이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약 날짜가 임박한 가운데 겨우 구하게 되어 지금의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나가는 분과 들어가는 저희가 날짜가 겹쳐서 짐을 한꺼번에 쌓아놓고 나중에 하나하나 짐을 정리하여야 했습니다. 낡은 건물인지라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수리를 병행하다보니 수개월을 정리하며 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평온하게 지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힘들고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능력이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이전보다 더욱 말씀을 통해 용기를 주시며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닫곤 했습니다. 돌아보니 순탄하게 온 줄만 알았는데, 사실 여러 위기들을 넘어올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날들이었음을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저 사용해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때때로 지난날들을 돌아볼 때면 참으로 교만하였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히 부교역자 시절에는 개혁주의 목회를 답답하게 여기며 나는 도저히 저렇게 답답하게는 목회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개혁주의를 배우기를 갈망하면서도 실제 목회현장을 보면서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같이 부르지만 마치 딴 종교인 듯 너무나 다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너무나 깜짝 놀라는 경험이 쌓여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고리타분하게 여겼던 개혁주의 목회를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선배와 동료 목회자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를 새삼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날들의 그런 철부지 같은 교만함을 오래 참아주시고, 바른 신학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것을 붙들고 참된 교회를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풋이나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것이니 …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전에는 건성으로 고백하였다고 하면, 지금은 참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참교추의 모든 회원분들께서도 동일한 고백이실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가는 이 길에서, 그 고백과 기도는 결국 같을 것이라 봅니다. 상황도 그렇고, 내 자신을 보더라도 한 없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 이끄소서.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보는 것이 저의 목회길의 소원입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으로 삼고, 변질되지 않고 나아가는 목사가 되도록, 그리고 저와 아내의 건강을 도우셔서 맡기신 소중한 주님의 양떼를 온전히 목양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참교추 정기모임 조편성

1조	김영제 배국환 김명일 이희석 강성대 서재길 김성민 임정택 김완술
2조	김훈 안기문 김용석 김시온 김영남 정병윤 김중구 강성일 이준동
3조	이성규 최은상 박지성 박경태 김종원 강육남 오준석 김대섭 박상우
4조	정종남 강동훈 이대원 정우열 김학재 강사명 이성준 차지태
5조	권오인 이원범 박충성 김선민 신용화 김양수 황범진

♠ 참교추 일정안내

정기 모임	매월 3번째주 월요일
정기 세미나	5월 마지막주 월-수 (5월 24-26일)
컨퍼런스	10월 마지막주 월요일(10월 25일)
부부 수련회	코로나로 일정 연기
신입회원 나눔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 2021년 회원교회

- 광명믿음교회
- 광야의샘교회
- 높은뜻교회
- 두루선교교회
- 물댄동산교회
- 백마누리교회
- 생철교회
- 세계로교회
- 송정교회
- 심플교회
- 양무리교회
- 영남교회
- 오빈교회
- 은혜의숲교회
- 주님의숲교회
- 참사랑교회
- 충만한교회
- 하늘가족교회
- 하늘기쁨교회
- 하늘영광교회
- 함양민들레교회
- 버밍엄한인교회

月刊 참교추

2021년 4월호 통권 3호

참교추 칼럼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신자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자신 안에 분명한 답을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구약 성경에서 '영광'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 (כָּבוֹד)입니다. 카보드의 문자적인 뜻은 '무게', '무게감', '가치있음'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뜻으로는 '위대함'과 '풍성함' 등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광'을 이러한 의미와 뜻을 담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어떠한지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모세 오경을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물리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출24:16) 모세는 시내산에 머문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역사서는 성전에 가득한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가 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왕상 8:10-11)

선지서는 어떨까요? '이사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사 6:3)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겔 10:4)

시편 또한 영광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약 50여회 이상 기록되었습니다. 대부분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표현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 8:1)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천국 등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막, 성전에 가시적으로 임한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 등이 영광으로 기술되는 이유입니다.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구약에서 영광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신약에서 헬라어 '독사($\delta o \acute{\xi} \alpha$)'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헬라어 '독사'가 구약 성경의 '카보드'가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신약은 '독사'를 앞서 말했던 구약의 신학 사상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신약 성경의 '독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언급하던 영광을 신약은 예수님께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서술할 때 그의 인격과 사역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delta o \acute{\xi} \alpha$)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 1:2-3)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의 존재는 계심(being)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본체의 존재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다니!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애 전부가 영광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영광이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변화산, 십자가의 고난, 죽음과 부활 등 그리스도의 모든것이 영광입니다. 신약 성경은 주님의 생애 속의 모든 면에서 영광을 사용하여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요 2:11)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눅 9:32)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아는 빛이 교회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후 4:6) 이처럼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있습니다. 온 세계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진 최고의 목적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종말론적 차원에서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언급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딛 2:13)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란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크게 4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내적인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것,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적인 영광의 외적인 전시 혹은 발산입니다. 내적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셋째, 이렇게 발산된 영광을 아는 지식 또한 영광입니다. 넷째, 인식한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존재가 드러내는 영광의 광채를 '영광의 반사체'가 되어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용법을 하나님께 적용할 때 '하나님의 내적 영광'과 '외적 영광'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내적 영광'이란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 속성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한 인격적 특성인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 무한한 사랑, 무한한 기쁨을 하나님의 내적 영광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외적 영광'이란 '하나님의 내적 영광'이 피조물을 향해 드러나며, 발산되고, 전달됨을 말합니다. 피조물은 전달된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것이 '외적 영광'입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이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발산하는 외적인 영광도 무한하고 영원할 것이며, 따라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또한 무한히 영원토록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것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영원토록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무한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천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지식과 인간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을 알아가는 연합이 무한히 증가해가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것과 피조물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것이 영원히 증가해 가는 곳입니다. 정체 되거나 권태로움이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끝없는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지루함이란 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때문에 흥분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원토록 전인격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송축할 것입니다. Soli Deo Gloria!

소식지 전체에 대한 구독은 참교추 홈페이지(www.fortruechurch.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ews

4월 정기 모임

- 4월 5일 (월) : 10시 30분
- 오직 하나님께 영광 [10-14장]
- 삼위일체와 구속언약 [234-289p]

4월 신입회원 모임

- 4월 26일 (월) : 오후 8시
-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 Part 3
- 참교추 컨퍼런스 2015

5월 정기 세미나

- 5월 24-26일 (월-수 / 2박 3일)
- 개혁 신앙의 정수(부흥과 개혁사)
- 속초 금호 리조트

높은뜻교회(김영채 목사)

백마누리교회(김선민 목사)

충만한교회(김완술 목사)

참교추 설교

언약으로 보는 성경 – 에덴과 성전

김영제 목사 | 하늘기쁨교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8-17)

들어가며

창조된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복제품이고, 모사이고, 모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는 그 일에 등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사랑과 신뢰와 섬김의 본을 온 우주에 드러내시는 언약적 행위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사하는 일이 이 땅의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는데 그곳은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은 수풀이 우거진 자연상태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은 그저 정원 같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셨던 곳, 하나님의 영광이 종합적으로 경험되는 중심 공간이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에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세계에서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을 드러내신 장소였습니다.

성전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고, 확산시켜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덴에서 보이셨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소들을 끝까지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에덴이 가지고 있던 요소들을 그대로 가진 한 공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위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이 왕국이 된 후 성막은 솔로몬 왕 때 제대로 된 건축물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덴을 의미했습니다. 에덴동산이 왜 성전이었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봅시다.

에덴동산과 성전(1) : 높은 산

먼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데, 성경에서는 높은 산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시내산이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과 계시록의 심판 장소를 의미하는 시온산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종말론적, 최종적인 장소로 산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에덴 역시 산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14절을 보면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왔다고 말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에덴이 높은 산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에스겔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때 그를 하와를 유혹한 사탄에 비유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쫓아냈고"라고 말합니다.

에덴이 산에 위치했었다는 것과 연관해서 창세기 2장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자신이 본 성전 환상에서 강이 성전 입구에서 흘러나와 물에 닿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겔47-발목, 무릎, 허리, 헤엄). 스가랴와 요엘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욜3:18, 슥14:8)라고 말하고, 사도요한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계22:1)라고 말합니다. 에덴은 성전처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물이 솟아나게 하는 발원지였던 것입니다.

에덴동산과 성전(2) : 나무

두 번째로 우리는 에덴에 있던 나무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동산 안에 있던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말했는데, 이와 유사하게 시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시19:7-8)라는 묘사를 되풀이합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지 말라는 여호와의 법이었고 그것을 어길 때 죽음이 있었듯, 성전 지성소의 언약궤 역시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법)이 들어 있었고, 언약궤는 함부로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죽게 되는 나무로 된 상자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뿐만 아니라 에덴의 생명나무 역시 나무 모양으로 된 성소의 촛대(생명의 영-성령)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두 나무 외에도 에덴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는데(겔31, 계22) 솔로몬의 성전에는 건축 재료로 많은 나무들이 사용될 뿐 아니라 성전 장식들에도 풍성한 나무 형상들이 반영됩니다.

에덴동산과 성전(3) : 보석

세 번째로 창세기 2장 10-14절은 에덴에 다양한 보석과 금속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에스겔 28장에 따르면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마, 호박, 백마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 에덴동산에 있었던 것으로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은 성전에서 섬기던 대제사장의 예복, 특별히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면 마지막 때 이뤄질 종말론적 성전에 기초석으로 이 보석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렇게 에덴의 보석들은 그곳이 성전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보석들은 에덴의 보석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시키는 장식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 교회의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천국의 보석들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여전히 세상의 물질적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흥분시키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석은 우리가 캐내서 사용할 것들이 아니라 에덴에 있었고, 제사장의 흉패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요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동산과 성전(4) : 그룹

네 번째로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동쪽 문 밖에 두 그룹(천사의 형상)을 세워두셔서 에덴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는 그룹이 마주보고 지키고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존재 역시 에덴이 성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에덴동산과 성전(5) : 제사장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셔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아바드, 샤마르)는 성막 안의 제사장의 임무를 묘사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즉 아담에게 주어진 임무는 일차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또 타락 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옷은 장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실 것, 옷 입히실 것을 예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전 제사장들이 입은 예복과 연속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담이 죄 때문에 겪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채로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은 성막이나 성전의 임무를 위해 반드시 지정된 옷을 입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즉 아담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으로 에덴이 성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

이렇게 에덴은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덴은 처음 만들어진 상태로 계속 가도록 의도된 곳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아담도 순종을 통해 에덴이라는 공간이 안식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것을 완수했어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탄에게 주권을 넘긴 아담 때문에 인류는 에덴 밖에서 창조 목적을 거스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시키면서 퍼져 나가기보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생존하려고 세력을 모아 발전합니다. 또 그것을 자랑하고 거짓 위안을 삼기 위해 에덴을 닮은 거짓 산을 쌓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이었고, 현대의 도시와 문명입니다.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설명한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에덴을 연상시키는 성막, 성전을 주셔서 사람이 에덴에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최가 그 관계를 막고 있다는 것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피흘림이 필요하다는 것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전신앙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에 드러내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역시 실패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성전의 역할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시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셔서 자신이 성전의 기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성전 에덴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이 첫째 아담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참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교회라는 성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산시키는 일을 실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며

우주 창조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찬양하게 하는 언약적인 사역이었듯, 성전 에덴은 많은 피조물 중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언약적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우주와 지구와 모든 공간과 거기 채워져 있는 생물과 무생물들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고안된 곳입니다.

하늘기쁨교회

설교 전문을 축소 편집한 것입니다.

참교추 게시판

『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도사입니다』

박경태 전도사 | 주의길교회

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도사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30세입니다. 올 해부터 고려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1년간은 학업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 절에 다녔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불교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IMF 시기에 집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어머니께서 먼저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순절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신앙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스무 살부터 작년까지 함께 했던 교회는 고신에 속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현상적인 성령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공동체에 머물고 있을 때 저는 여러 존재적이고 현실적인 고민들을 교회가 제대로 답해주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곳에서 듣는 내용들은 피상적이게 느껴졌고 특히 율법주의적 가르침은 더욱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과 다른 여러 개혁주의 저자들의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는 책은 저의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개요'라는 책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을 통해 개혁주의의 웅장함을 조금 맛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개혁주의 신학에 빠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개혁주의의 신학에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은 저의 마음에 안식을 주었고, 동시에 겸손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저의 신앙에 큰 영향은 끼치고 있는 저자가 있는데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그의 인간에 대한 통찰과 지혜는 저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저의 20대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기와 '목사와 설교자'라는 책을 읽은 일이었습니다. 이 책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부르셨다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그 소명의식을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의 신앙과 저의 신앙에 영향을 끼친 여러 저자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20대 동안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사역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부 간사를 맡았고, 유치부도 2년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작은 교회인 터라 설교할 기회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은 서두 없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신학의 중요성'입니다. 저희 교회는 신학을 강조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신학의 부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신학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짙게 깔려있는가 하는 것 역시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의 부재는 곧 변화의 부재로 이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되었고, 설교를 피상적이고 가볍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존재의 중요성'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활동보다 활동을 하는 그의 '사람 됨'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사역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사람 됨을 간과하고 사역이라는 활동을 열중할 때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역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식은 존재 됨이 따라주지 않으면 얼마나 무익한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저의 사역의 성공보다 저의 존재 됨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역 가운데 저의 교만과 자기 의(義), 조급함, 자기 열심, 게으름, 탐심,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은 철저히 다루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는 '고난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사역한 교회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교회였기에 많은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그들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놀란 것은 청년들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깨어진 가정 속에서 큰 고통을 겪어 왔으며, 풀리지 않는 존재적인 질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곧 성도들이 고통을 잘 견디도록 이끄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역자들 역시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성도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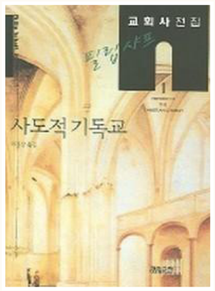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해란 개혁주의자들의 진리를 향한 타협 없는 싸움과 외골수적인 소통 없음을 동일시 한 것입니다. 특히 설교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정말 절절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텍스트 중심의 설교, 교리적인 설교만을 강조하고는 성도들의 현실과 문제, 그들이 가진 생의 질문들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기에, 저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에 닿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에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질수록 더더욱 목회와 사역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구나, 끝이 없는 일이구나라는 부담감이 저를 참교추 모임으로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모임에서 선배님들에게 지식으로나 인격으로나 많이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사

마카베오 시대(BC 150) 이후의 유대교

필립샤프 교회사 전집 '사도적 기독교' 71-72p를 축소 발췌한 것입니다.



신앙의 면에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유수 이후 율법 조문과 자기들의 유전과 의식에 철저히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정신과 능력에는 무지했습니다. 마카베오 시대 이후에 그들은 상호 적대적인 세 분파(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로 갈라졌습니다. 이들은 각각 '형식주의', '회의주의', '신비주의'를 대표합니다. 이 분파들은 또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플라톤 학파'라는 헬라 철학과 비교할 만합니다.

'바리새파'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정통신앙과 엄격한 형식주의, 율법주의적 자기의(義)와 유대교에 대한 광적인 엄수를 내세웠습니다. 대중과 여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공예바를 관장했습니다. 이들은 경건과 이론적 정통신앙을 혼동했습니다. 성경에 장로의 유전을 덧붙여 성경을 "효력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해석하다가 그 본의를 죽여버렸고, 살아 있는 법전을 미로와 같이 복잡하고 무거우며 괴로운 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들의 위선을 질책합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에 비해 규모가 적었습니다. 사고 방식이 회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이며 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문자 성경(특히 모세오경)을 받아들였지만, 구전 전승은 배척했고, 육체 부활과 영혼 불멸, 천사들과 영들의 존재, 그리고 만유를 지배하는 섭리에 관한 교리 등은 부정했습니다. 부유층 사람들이 많았고, 한동안 대제사장 직을 독점했습니다. 가야바가 이 분파 소속이었습니다.

'에세네파'는 필로와 요세푸스에 등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치 단체가 아니라 신비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수도회 내지 형제단이었습니다. 주로 촌락들과 사해 연안의 엔게디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규모는 4,000명쯤 되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성경을 독단적이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데다 외국의 신지학적(theosophic) 요소들을 일부 가미했습니다. 이들은 재산을 공유했고, 흰 겉옷을 입었으며, 육식과 피 흘리는 제사와 맹세와 노예 제도와 결혼을 배격했습니다. 극히 간소하게 살았으며, 이런 생활 방식으로 더 높은 성결에 도달하기를 바랐습니다. 기독교 수도원 제도의 선구자들입니다. 에세네파가 사도들이 이끈 기독교와 접촉한 사례는 골로새에 퍼진 이단 사상 외에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중에서도 특히 바리새파는 복음서들 곳곳에서 예수님의 철저한 대적들로 등장합니다. 평소에는 적대하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손을 잡습니다.

추천도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존 번연 / 씨뿌리는 사람 / ISBN 9788990342171

칭의(의롭다 하심)는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앞에서 자신의 죄악 됨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죄인에게 이 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교 개혁자 루터는 칭의 교리가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칭의 교리는 무시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진지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이 시대의 분위기는 우리의 깊은 죄성을 너무나도 가볍게 다룹니다. 그 결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칭의 교리는 무시됩니다.

뿐만 아니라 칭의 교리는 오해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중요하지만, 그 후에는 성화 교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더이상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리가 아니라는 은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칭의 교리를 악용하여서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죄를 허용하며 죄로 인한 심적 고통을 잠재우기 위한 마취제로 사용하는 극단적인 오해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교리 중 하나는 칭의교리입니다. 칭의 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책은 그 점에서 매우 유용하며 가치 있습니다. 존 번연은 이 책에서 칭의에 관하여 성경의 사례를 제시하며, 죄인에게 왜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지를 상세히 서술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이후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말해줍니다. 결국 칭의가 얼마나 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말미암는다는 것,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으며 칭의가 성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한다는 것, 그리고 의롭다 칭함 받은 자는 계속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한국 교회에 매우 유익한 책이 분명하여 추천합니다.

소식지 전체에 대한 구독은 참교추 홈페이지(www.fortruechurch.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